

“일본에서 안 알려줘서...”

광주시·전남도 코로나 ‘깜깜이’

확진환자 동선·접촉자 파악 못해 ‘비난’ 떠넘기는 모습까지...가짜뉴스도 퍼져 ‘흉흉’

광주·전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빚어진 결과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가짜뉴스’가 급속히 퍼지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지난 6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16번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340명으로 전날보다 34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중 145명에 대한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자세한 사항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제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지난달 25일 16번 확진자 A씨(42·여)와 오빠인 B씨(46)가 식사를 한 뒤 이날 오전 B씨가 22번 확진환자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도 파악을

하지 못했다.

전날 광주 우편집중국이 B씨가 A씨와 식사를 했던 사실을 파악하고 폐쇄조치를 내렸지만, 이 사실도 뒤늦게 파악했다.

전남도 또한 16번 확진환자가 태국에서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보 받지 못했다”며 사실확인을 하지 못했다.

16번 확진환자로부터 감염된 오빠 B씨가 추가 확진자(22번째)로 밝혀진 지난 6일 김영록 지사는 긴급 담화문을 통해 B씨가 살고 있는 해당 마을의 경로당을 폐쇄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기자들이 현장을 찾았을 때까지 폐쇄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B씨의 실거주지가 광주 북구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전남도의 담당 부서는 “거주지는 물론 현재 주소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주시와 전남도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22번 확진자와 관련해 “정



지난 5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18번 확진자가 머물렀던 광주21세 기병원 입원환자 중 확진자들과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20여명여 광주 소방학교로 이송됐다. 방역당국 관계자가 입원환자를 이송한 구급차를 소속하고 있다.

확하지 않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전남지역 환자이기 때문에 전남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오늘 아침에서야 관련 내용을 들었다”며 “전남에서 파악을 해야 한다. 광주시가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전남도에서도 22번 확진환자 발생 이후 “광주에서 16번 환자가 나주에서 22번 환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그동안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SNS 등에는 각종 의혹이 떠돌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만 고조시키고 있다.

광주의 한 시민은 “지난 4일 첫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발생 이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환자가 어디에 다녔고 누구를 만났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퍼져 다들 불안해 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에서 정확한 정보를 보다 빨리 알려줘 혼란을 막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강아라 기자

동구, 갱년기극복 운동교실 회원모집

광주 동구가 2020년도 ‘4064 갱년기극복 운동교실’ 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운동교실은 갱년기건강이 중년기·노년기까지 지속됨에 따라 운동, 명상·호흡, 심뇌혈관질환 관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적·육체적 예방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운동교실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2회(월·수 11~12시)에 걸쳐 운동프로그램과 건강관리교육으로 진행된다.

서구, 여성친화 주민참여단 모집

광주 서구가 오는 24일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여성친화 주민참여단을 모집한다.

여성친화 주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아카데미, 지역사회 공간, 공공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해 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서구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주민으로서 양성평등 실현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가 참여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서구청 여성아동복지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beauty83@korea.kr)로 신청할 수 있다.

남구,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광주 남구는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의 옷을 바꿔 입는 과정에서 부주의에 의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활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월 중순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남구는 7일 “산불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위험요소 제거를 통한 산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마련,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하고 평일 및 휴일에도 상황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는 이 기간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인화물질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산불예방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 13명을 투입, 봄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북구, 주민참여형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광주 북구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인근의 공·폐가, 노후주택, 나대지 등을 마을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썸지 공유주차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과 주택가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는 주민 공모를 통해 2개소 내외의 마을주차장을 조성한다.

이에 북구는 오는 28일까지 주민과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신청은 해당 토지 소유자와 협의 후 이웃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인접 주민 10세대 이상의 동의를 거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교통지도과(☎062-410-8474)로 주민이 직접 신청하거나 동 주민자치(위원)회 협의 후 접수하면 된다.

광산구민들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

9일 광주 광산구 월곡2동 사회단체와 상가변영회 회원, 고려인마을 주민 등 50여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주변과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소독에 나섰다.

광산구에서 지원받는 소독약품 20개를 들고 나선 이들은, 방역 체계를 갖추고 오후 2시부터 외국인들의 주요 방문지인 식료품점과 음식점과 고려인마을, 동 주요 거리 구석구석에 소독을 실시했다.

하루 전인 8일 윤남동 주민자치회와 통장단 등 사회단체 회원 40여명도 ‘윤남동 주민안전방역단’을 구성, 21세기병원 주변 상가와 버스정류장, 광원 등 다중이용시설 집중 방역을 마쳤다.

임형택 기자

광주교육청, 502곳 신종 코로나 차단 방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자 발생함에 따라 광

주지역 유치원과 학교 등에 대한 긴급방역이 실시된다.

광주교육청은 광주지역 유치원을 포함한 공·사립 전체 502개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 긴급 특별방역’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 165개교, 초교 156개교, 중학교 91개교, 고교 67개교, 특수학교 5개교 등 502개교를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광주교육청은 이번 특별방역을 신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인 2월 안에 끝마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7일과 8일 1단계 특별방역으로 확진환자 거주지 및 방문학교 인근 1.5~2km 36개 학교에 대한 긴급 방역을 완료했다.

본사사령

▲김덕순

지역사회부
(보성담당) 차장

▲안구일

지역사회부
(보성담당) 국장

의원면직

<2020년 2월 6일자>

광주시, 마을기업 4곳 신규 지정

사업비 5천만원 등 지원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마을기업 심사 결과 마을기업 4곳이 신규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신규 마을기업 4곳은 △협동조합 팜공마을공유공동체(동구, 마을주민이 만든 수제 차 등 판매) △다이오씨와 협동조합(서구, 제과제빵 체험학습·판매) △츄츄는 마을기업(북구, 실용무용학습동아리 교육) △손빛(북구, 공예 제조·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골목축제) 등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각 구별로 마을기업 접수를 받아 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개 기업을 행정안

전부에 추천한 바 있다.

신규 지정된 각 마을기업에는 올해 사업비 5000만원과 컨설팅, 판로를 지원해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마을기업’은 자치구 단위의 주민이 70% 이상 참여하고 5인 이상 출자 하는 기업으로,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할 수의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다.

광주에는 이번에 지정된 4곳을 포함, 마을기업 총 64곳이 식품,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에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인문진흥재단
Korea Human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이여, 남에게서 재만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 급여비 | 고소득층 | 중위 | 3분위 | 2분위 | 저소득층 |
|----------|----------|----------|---------|---------|---------|
| 보험료부담 대비 | 1.1배 | 1.7배 | 2.1배 | 2.7배 | 5.3배 |
| 금액 | 240,833원 | 125,531원 | 79,147원 | 48,103원 | 26,697원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